

“청소년 꿈·스펙 동시에 만족”

불교계 국제청소년포상제 참가 본격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제청소년포상제’ (이하 성취포상제)를 후원하는 넬슨 만델라의 말이다. 청소년의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불교계가 프로그램 확산에 본격 나서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는 여성가족부 주요정책사업으로 자기개발과 신체 단련, 봉사활동, 탐험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이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동장, 은장, 금장 등 포상단계별로 나뉘며 활동분야는 탐험,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등 4개 분야에 대해 각 영역별로 3.6.12개월의 최소 필요 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성취 목표에 달성해야 단계별 포상을 받게 된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성취포상제 중앙운영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에 따르면 2012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참여한 사람은 42개이며 7개 사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그동안 사찰 등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과 영어법회 등을 자기개발활동에 포함시켜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서울 금강산원의 경우 청소년 불교명상을 통한 집중력향상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9월부터 진행된 청소년불교명상에는 청소년 기초참선수업을 마친 20여 학생들이 참여해 이완명상, 자기관수행 등을 진행했다.

서울 육천암의 경우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7호인 보도각백불의 환경을 이용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키기 활동과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병행한 것이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불교영어연극 등을 활용해 영어법회와 성취포상제의 자기개발활동을 동시에 하기도 했다.

NGO인 YBA와 연계해 태국 메솟 지역에서 1주일간 봉사활동을 하고 불교방송 참관 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견학의 기회를 제공했다.

동장을 수여받은 육천암 청소년 범회 박진하 학생은 “대학 입시에 있어 하나의 스펙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 생각돼 시작하게 됐지만 인생에 있어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문제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동안 꾸준히 활동해야 하지만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워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동장은 1450명, 은장은 110명이 받았고, 금장은 단 3명만이 받았다. 12만 3천 명에 육박하는 등록자 수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으로 이듬만 걸친 이들이 많다.

육천암 김미숙 지도교사는 “청소년 능력 개발의 이면에는 입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

지나해만 49개 사찰 참여
명상 통한 집중력 향상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인기
청소년 잠재력 향상에 주목

가 있다.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성취포상제를 봉사활동 점수 따기와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로 취지를 오해하기도 한다”며 “이들의 요구를 모두 외면할 수는 없다. 불교계에서 청소년 잠재력 개발과 능력개발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국제청소년포상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청소년이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을 스스로 정하고 자발적으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라며 “포교활동에도 큰 도움을 주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보다 많은 불자들이 사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교원 포교부장 송복 스님은 “청소년 잠재력 개발은 물론 장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찰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계획”이라며 “참여 사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새하얀 도량 새하얀 마음

강원도 오대산 동쪽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월정사에 1월 23일 큰 눈이 내렸다. 부처님 사리를 모신 석탑 앞에 두 손을 모은 약왕보살(藥王菩薩)도 새하얀 눈을 이고 있다. 일월정명덕(日月淨明德)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현일제 색신삼매를 얻은 회견보살은 환희심에 가득 차 천이백년 동안 부처님을 공양하고 일월정명국 왕자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다시 팔만아천세 동안 사리탑을 공양하였으니 바로 약왕보살이다. 내린 눈에 도량이 온통 새하얗도록 도량을 찾는 중생들 마음은 약왕보살 공덕으로 새하얗게 빛난다. 글=박재원 기자·사진제공=월정사

종교인 소득, '사례비' 규정해 과세

통진당 김재연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종교 행위를 사례비로 규정해 과세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1월 20일 종교인의 종교활동의 대가인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명시해 과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 취지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인의 사례금도 폭넓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나 종교인의 사례금을 근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됐다”며 “종교인의 사례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조항에 ‘종교 시설에서 받는 봉사료·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사례비’를 신설할 것을 발의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인 과세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일 기자

산중총회법·선거법 재개정 필요

교구본사주지協 마곡사 회의서 결의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모임인 전국교구본사주지협회의(회장 성문)는 1월24일 제6교구본사 마곡사 연화당에서 제25차 회의를 열고 산중총회법과 선거법의 재개정을 총무원에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산중총회법 구성원 자격 중 지난해 개정된 ‘당해 교구 본발사 주지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비구’를 원래대로 ‘당해 교구 본발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로 재개정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선거법에서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급 이상의 총무원’에게 주어진 선거권을 현실성 있게 1년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의 종단 현안보고도 이뤄졌다. 주경 스님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새로 총림으로 지명된 동화사와 쌍계사, 범어사에 방장 추천과 현재 일부 교구본사들의 총림

지정 추진을 법 개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포교원에서 보고한 ‘정전 60주년 한반도 세계평화 기원대회’에 대해서 교구본사주지협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총무원과 포교원, 범어사, 전국지구니회 등의 실무자들이 참여해 논의하고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교구본사주지협회의 다음 회의는 3월28일 은해사에서 개최된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새정부 금강산 관광 재개 힘써달라”

운동본부 건의서 제출

금강산관광재개국민운동본부(공동 상임대표 자승 스님, 이하 운동본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건의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1월 24일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과 재개에 필요한 절차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전달했다.

운동본부 이승환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건의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대화 추진, 이산가족상봉과 대북인도지원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건의서는 △적십자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관광재개 실무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분위기 조성 필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양측의 타협과 조정 필요 △관광장 신변안전 보장에 대해 북한의 의사 재확인 및 수용 등의 안을 담았다.

운동본부는 인수위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실태조사사업’을 통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발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토론회’ △통일을 염원하는 ‘금강산 국제 평화음악회’ 등을 올해 중점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925호 INDEX

종합	2·3
조계종교육원 신년 간담회 태고종 인공 스님 기자회견 아산 브람 방한이 남긴 것들 대불청 신년사업계획 발표 지관 스님 1주기 추모제	

사방세계 대구 사원聯 성도절 연합법회	5
-------------------------	---

신행 전국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6
----------------------	---

108선원을 찾아서 불국사 불국선원	12
------------------------	----



마음의 손으로 쓰는 Diary

마음 다이어리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기 위한 빈 그릇입니다. 하루 중에 만난 사람들,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들고 나는 마음들을 살펴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비워낸 그 자리에 마음의 꽃을 피우면서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가격 : 1권 13,000원 (택배비 별도)
■문의 : 02)2004-8215

2013년 '마음다이어리'는 대행선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유품과 말씀을 엮은 특별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생활의 지침이 될 법어와 '임효화백'의 그림이 어우러져 다이어리의 가치와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일정과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마음 그릇을 비우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마음 꽃을 피웁시다.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부터! 자신을 완성시켜 가는 여섯 가지 가치인 육바라밀과 자비를 실천하며 마음의 향기를 더해주세요.

